

일반 및 전기화재의 통계분석

General & Electrical Fire Analysi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이 상 교* · 이 성 일*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로 우리사회는 선진국에 진입할 목전까지 괄목한 성장을 해 왔다.

그로인해 우리주변에는 수많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복잡·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 중에서도 인적재난에 해당되는 화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예측 곤란하고 다양한 화재원인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화재발생 건수가 1980년대 초반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1995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통계자료에서 알 수가 있다.

화재건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경제발전 우선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산업발전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심층화, 대형화와 유류, 가스, 전기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 소방기관의 대책이 화재예방보다 진압에 치중하고 있는 점, 화재원인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유사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점 등이 화재가 계속 증가하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화재사고에 있어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발생 되어질 수 있는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상되어지는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소방행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불가결한 사항이다. 즉 화재가 어떤 이유로 발생해서 어떻게 확대되었고 왜 사상자가 발생되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화재예방정책,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적절한 화재통계 분류와 정확한 화재통계 집계 및 분석은 과거의 화재사고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통계는 과거에 발생한 화재사고 사실을 보여주며 그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고찰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0년간 화재통계를 분석·정리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 정책을 세우는데 객관적인 지표로써 도움을 줄 것이다. 화재통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과거 및 현재의 화재위험 정도를 규명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를 분석·도출 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화재위험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10년간의 화재발생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통계를 만들고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추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화재통계는 향후 화재를 최소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줄이기 위한 자료로 매우 중요한 통계로써 본 연구에는 10년간의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현황, 재산피해현황, 전국 시도별 화재발생현황, 월별 화재발생현황, 발생장소별 화재현황, 화재 원인별 화재현황 등을 수록하여 각 유형별 그래프와 표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재유형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2001년부터 2010년간의 화재통계 자료를 통해 각 유형별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1) 화재발생 추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2001년 36,169건을 정점으로 하여 2006년도까지 31,000~32,000건대에서 이어오다가 2007년부터 47,882건, 2008년 49,63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9년도부터 47,318건, 2010년 41,863건으로 화재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2010년도에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화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는 성장위주의 경제·산업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사회구조 개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생활환경 변화와 에너지 사용 증가 등 화재유발인자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인명피해 추이분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추이를 분석하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사망자는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500명 전후에서 머물고 있지만 부상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 사망자 및 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동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사망192명, 부상148명)을 반영한 결과이다.

3) 재산피해 추이분석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추이를 분석하면 과거 재산피해를 조사하여 본바 1990년도 접어들면서 화재건수와 재산피해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피해액의 급격한 증가요인은 화재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물품의 자산가치 증대와 피해규모의 대규모화로 인해 화재1건당 피해가 커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0년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667억원으로 집계, 전년도에 비하여 약 5.9%인 149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부산 우신 골드스위트 화재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불특정 주택 등의 손괴로 인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2010년도의 재산피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전국 시도별 화재발생 추이

화재로 인한 전국 시도별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충북이 가장 적은 화재건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수, 건축물 수, 차량보유(대), 상업,공업지역 등 대도시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월별 화재발생 추이

화재로 인한 월별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2000년 이후 12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화재 총건수 월평균은 3,747건으로 동절기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동절기에 화기취급이 많은 시기며 이로 인한 부주의와 건조한 날씨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6) 장소별 화재발생 추이

화재로 인한 장소별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화재장소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는 년 평균 주택에서 9,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 3,893건, 자동차 3,710건, 기타(음식점, 일상서비스,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창고시설, 동식물시설 등) 시설에서도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주거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목욕탕, 병원 등 사람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이나 다수인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7) 발화요인별 화재발생추이

최근 2010년 발화요인별 화재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870건으로 전체 화재의 4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고, 전기적요인 10,827건(26%), 기계적요인 4,060건(10%), 방화와 방화의심 2,675건(7%), 교통사고 567건(1.4%) 순으로 발생하였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빈도가 높은 원인은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 음식물조리중 화재, 불씨·불꽃·화원방치에 의한 화재, 쓰레기소각에 의한 화재 등 다양한 항목이 부주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화재통계자료는 10년간의 화재발생건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분화 하여 그래프와 표를 삽입하였으며, 유형별로 검토·분석 하였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화재통계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그래프와 표를 이용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1 화재발생 추이 총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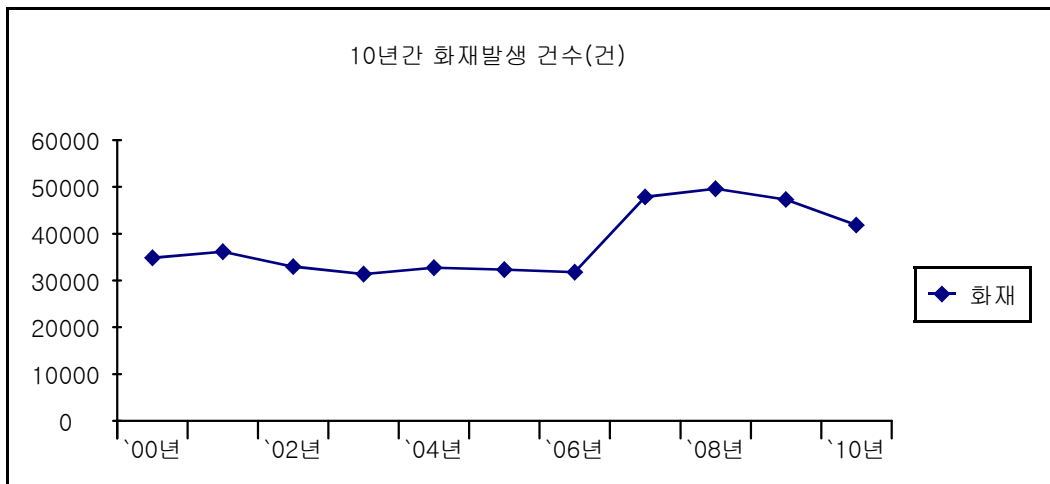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건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건수가 1987년 1만건 돌파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94년 2만건을 넘어섰고, 1998년 연간화재 3만건 시대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화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는 성장위주의 경제·산업 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사회구조 개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생활환경 변화와 에너지 사용 증가 등 화재유발인자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화재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거나, 인구와 소방대상물 증가에 비례한 소방력 확보·운영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도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재산피해가 없는 경우 건수에 누락되던 화재들이 화재건수에 포함되어 통계분석이 체계화 되면서 2007년 47,889건, 2008년 49,831, 2009년 47,3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010년 3월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결과 41,863건의 화재발생으로 년도 별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08년 대비 15.6%가 줄어들었다.



[그림 3.1] 화재발생 추이('0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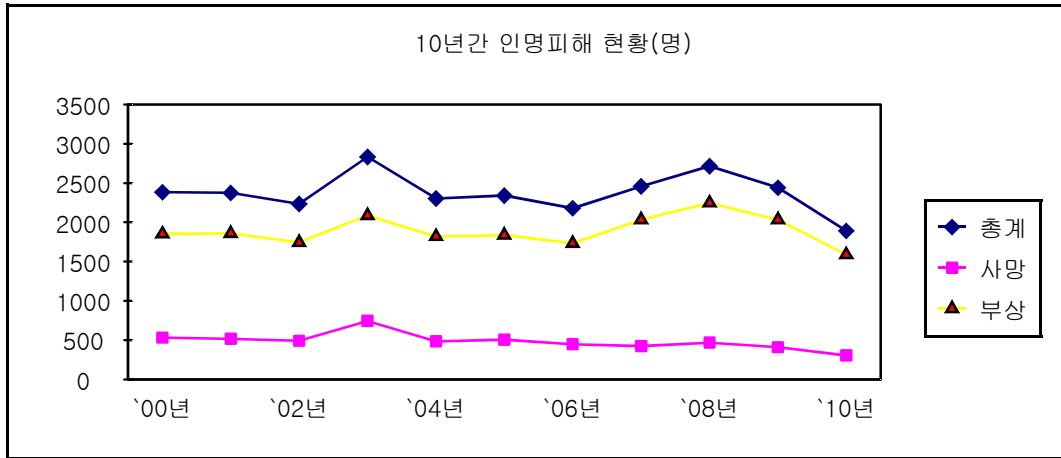
<표 3.1> 화재발생 추이('00~'10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화재 건수	34,844	36,169	32,966	31,372	32,737	32,340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3.2 인명피해 추이 분석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인명피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로 하고 있다.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자를 말하며,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중상, 중상 이외의 부상을 경상으로 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 추이는 [그림 3.2]와 같으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사망자는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500명 전후에서 머물고 있지만 부상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 사망자 및 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동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사망192명, 부상148명)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3.2] 인명피해 현황 분석('00~'10년)

<표 3.2> 인명피해 현황 분석('00~'10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2384	2376	2235	2833	2304	2342	2180	2459	2716	2441	1892
사망	531	516	491	744	484	505	446	424	468	409	304
부상	1853	1860	1744	2089	1820	1837	1734	2035	2248	2032	1588

3.3 재산피해 추이 분석

화재피해액은 피해 당시의 자산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 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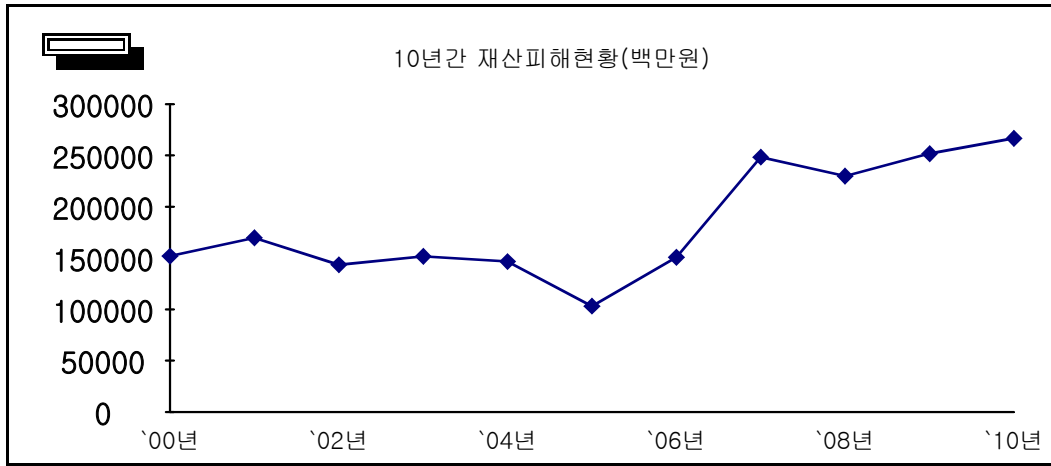
[그림 3.3]은 전체화재건수와 화재재산피해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과거 재산피해를 조사하여 본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도 접어들면서 화재건수와 재산피해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피해액의 급격한 증가요인은 화재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물품의 자산가치 증대와 피해규모의 대규모화로 인해 화재1건당 피해가 커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667억원으로 집계, 전년도에 비하여 약5.9%인 149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부산 우신 골드스위트 화재, 부천 중동 나들목 고가 밑 차량화재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불특정 주택 등의 손피로 인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단위/백만원)



[그림 3.3] 재산피해 현황 분석('00~'10년)

<표 3.3> 재산피해 현황 분석('0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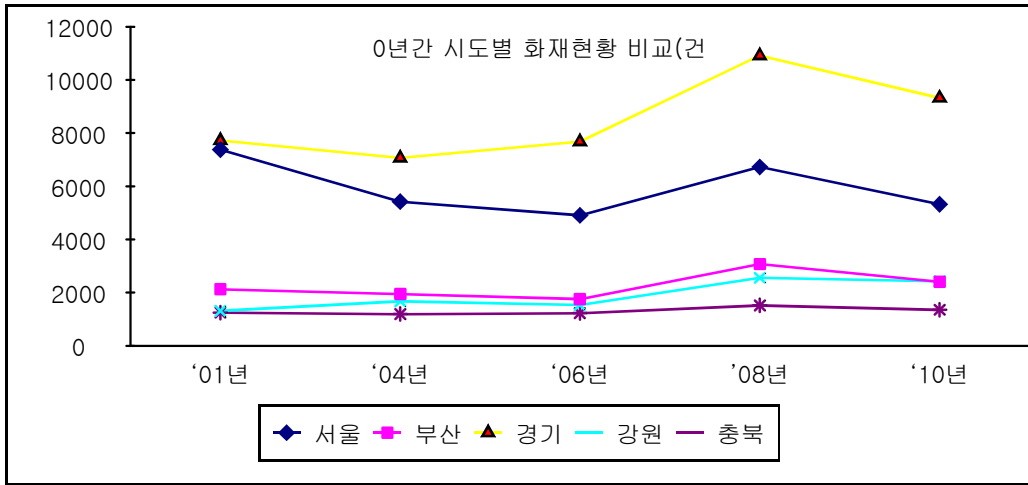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151,972	169,750	143,448	151,688	146,637	103,079	150,792	248,417	229,964	251,835	266,776

3.4 전국 시도별 화재발생 분석

전국 화재발생건수로 봤을 때 '09년(10,479건)에 이어 '10년도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9,32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의 화재건수만으로 보면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09년 대비 서울특별시가 5명(13.5%)증가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인명피해 증가율을 보였고, 재산피해는 경기도가 83억원(10%)증가 하였다,

'09년 대비 부상자 최다 증가 시·도는 강원도(13명 증가)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도는 부산광역시로 '09년 대비 사망자가 50명에서 19명으로 163% 감소하였다. 이는 '09년 대형화재인 상하이노래방 화재 및 실탄사격장 화재(총 사망자 18명)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화재 한 건당 인명피해가 0.0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국 평균은 0.05명으로 '09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3.4]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표 3.4>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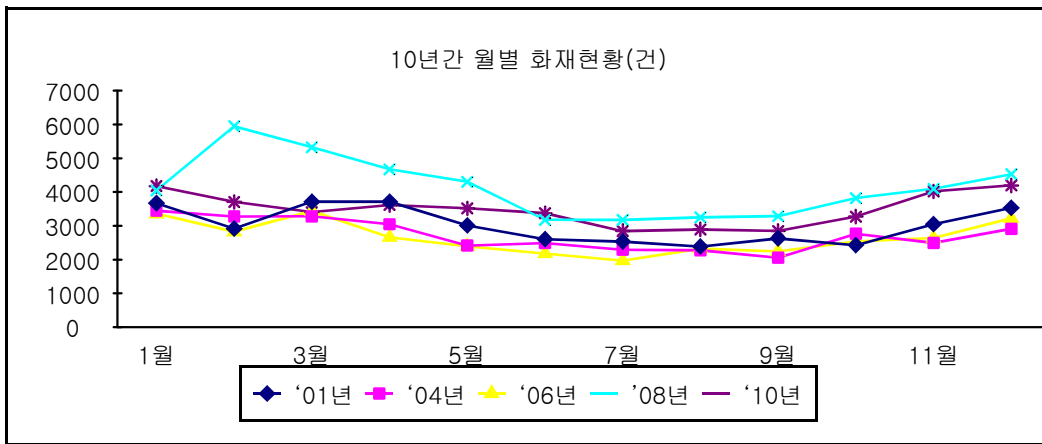
구 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01년	7,379	2,123	7,726	1,315	1,250
'04년	5,421	1,945	7,068	1,673	1,190
'06년	4,907	1,757	7,681	1,534	1,226
'08년	6,731	3,072	10,920	2,556	1,518
'10년	5,321	2,403	9,321	2,430	1,351

3.5 월별 화재발생 분석

2000년 이후 화재발생건수를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화재 총건수 월평균은 3691건으로 동절기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010년도 최근 월별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 12,392건, 춘절기인 3월, 4월, 5월에 10,54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의 54.8%를 차지하였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4,195건의 화재와 7월에 가장 적은 2,84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화재원인인 부주의의 경우, '09년까지는 건조한 시기인 3~4월에 많이 발생하였지만 '10년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수의 11.3%가 11월에 발생하였다.



[그림 3.5] 월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표 3.5> 월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년	3,671	2,913	3,715	3,713	3,008	2,601	2,530	2,386	2,625	2,424	3,050	3,533
'04년	3,446	3,276	3,283	3,044	2,413	2,487	2,292	2,275	2,053	2,763	2,493	2,912
'06년	3,357	2,826	3,438	2,658	2,394	2,176	1,969	2,323	2,241	2,537	2,638	3,221
'08년	4,047	5,947	5,324	4,671	4,305	3,176	3,174	3,251	3,287	3,822	4,098	4,529
'10년	4,178	3,706	3,409	3,616	3,519	3,372	2,842	2,890	2,845	3,272	4,019	4,195

3.6 장소별 화재발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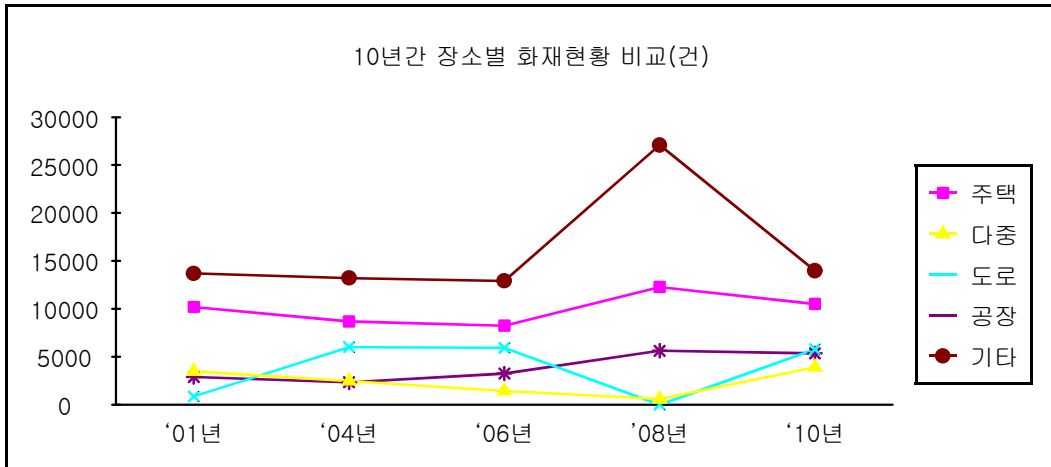
화재장소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는 년 평균 주택에서 9,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 3,893건, 자동차 3,710건, 기타(음식점, 일상서비스,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창고시설, 동식물시설 등) 시설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단독주택 385명(20.3%), 공동주택 379명(20%), 자동차 123명(7%), 공장 146명(8%)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사람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인 주택과 자동차에서 피해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화재 한 건당 인명피해는 주로 주거시설, 숙박시설, 막사, 고시원, 목욕탕, 병원 등과 같은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공업시설, 화학공업시설 및 위험물제조소등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를 내는 장소이다. 2010년도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평균 건당 인명피해보다 15배를 웃도는 수치(0.77명)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도는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공장 588억원(22%), 단독주택 352억원(13.2%)의 화재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림 3.6]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표 3.6>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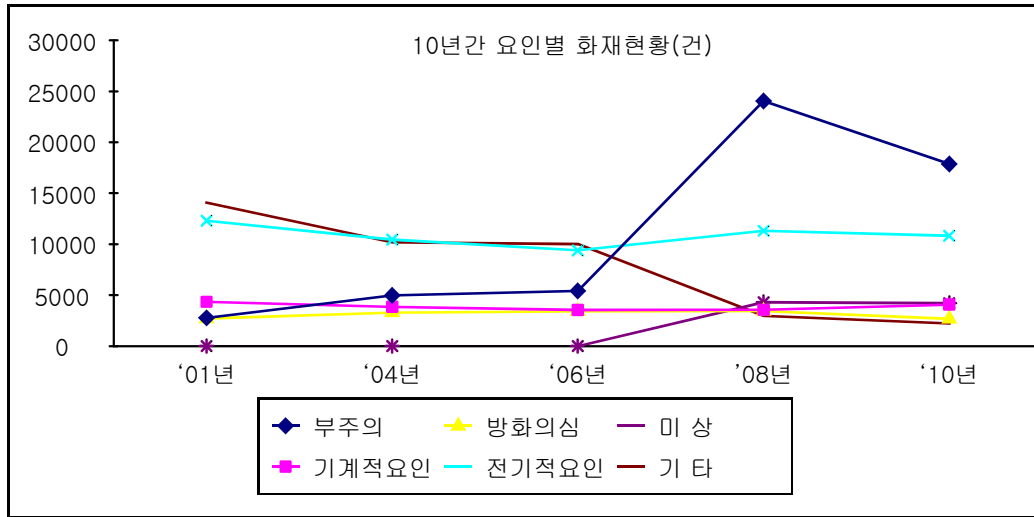
구 분	주택	다중이용	도로	공장	기타
'01년	10,204	3,480	861	2,890	13,697
'04년	8,686	2,481	6,012	2,339	13,219
'06년	8,234	1,445	5,929	3,251	12,919
'08년	12,282	595	-	5,630	27,100
'10년	10,509	3,905	5,788	5,354	13,986
	49,915	11,906	18,590	19,464	80,921
	9983	2382	3710	3893	16185

3.7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분석

2010년 발화요인별 화재현황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870건으로 전체 화재의 4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고, 전기적요인 10,827건(26%), 기계적요인 4,060건(10%), 방화와 방화의심 2,675건(7%), 교통사고 567건(1.4%)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현황을 보면,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가 5,287건(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조리중 2,587건(14%), 불씨·불꽃·화원방치 2,308건(13%), 쓰레기소각 2,170건(12%)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08년도와 비교하여 방화·방화의심이 37.9%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1.5%, 가스누출(폭발)로 인한 화재는 13.2%순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7]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표 3.7>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01년~'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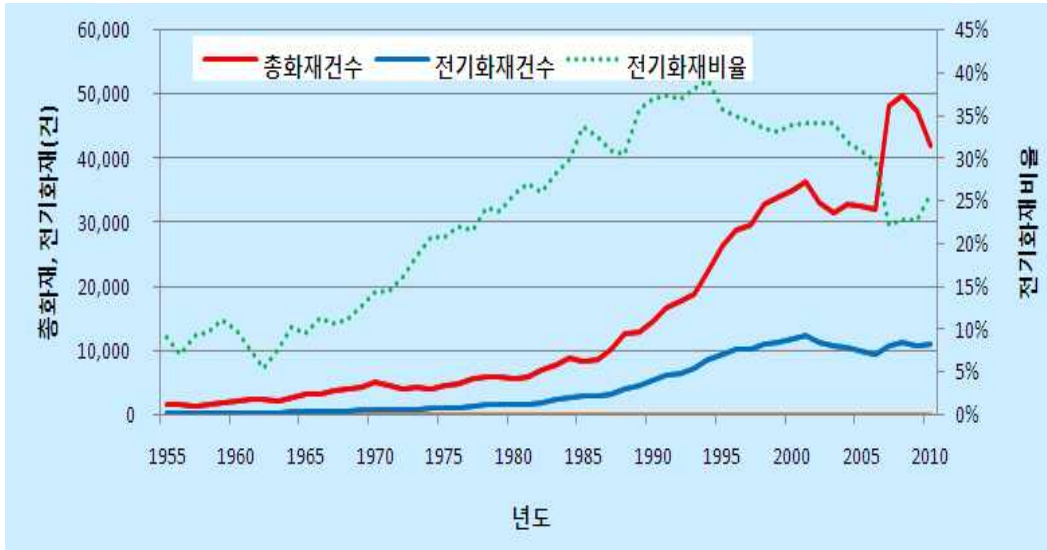
요인별 년도	부주의	기계적 요인	방화의심	전기적 요인	미 상	기 타
'01년	2,756	4,340	2,709	12,300	-	14,064
'04년	4,970	3,844	3,291	10,450	-	10,182
'06년	5,416	3,543	3,413	9,392	-	10,014
'08년	24,048	3,554	3,441	11,311	4,301	2,976
'10년	17,870	4,060	2,675	10,827	4,208	2,223

1) 전기화재

[그림 3.8]은 전체 화재건수와 대비한 전기화재의 비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전기사용량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1985년도 3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전기화재는 1994년도 39.1%를 기점으로 점차 점유율 감소추세에 있다.

2010년도에는 26%로서 30%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부주의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전기화재를 예방하여 전체화재건수를 줄이는 것이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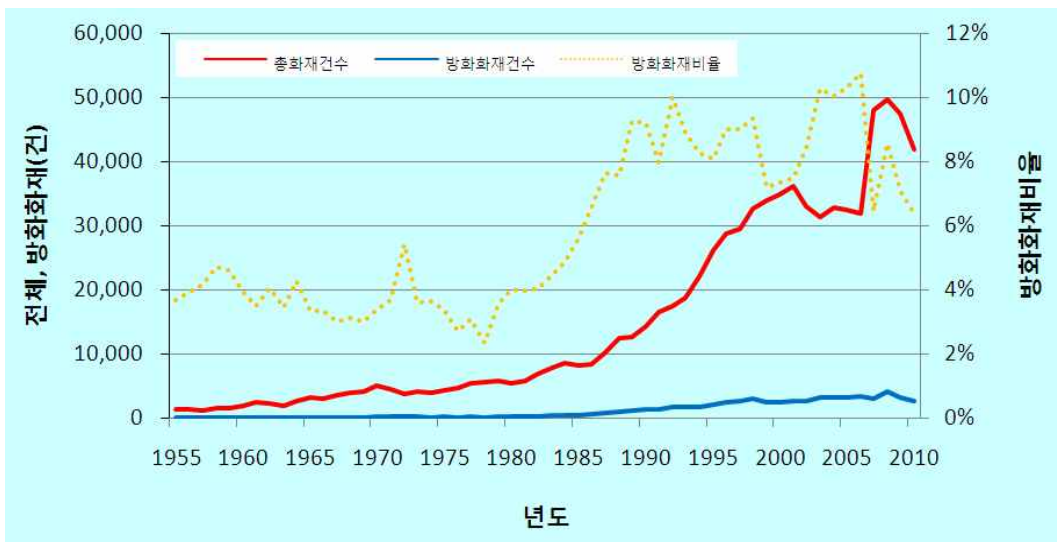


[그림 3.8] 전기화재의 추이(1955년~2010년)

2) 방 화

[그림 3.9]는 전체 화재발생건수와 대비한 방화화재비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방화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1980년 이전에는 평균 4%대 근방에 머물다가 198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전체 화재발생건수 대비 10%대로 진입하였다. 2006년 10.74%, 2007년 6.47%, 2008년 8.55%, 2009년 7.10%, 2010년 6.4%로 완만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9] 방화화재의 추이(1955년~2010년)

4. 결 론

화재통계는 화재위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해결책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화재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화재건수는 2007년도부터 연간 4만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인적·물적인 피해를 수반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신임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며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모든 국민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범국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화재통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43%를 차지하여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2010년도 화재발생 총 건수 41,863건 중 화재발생의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17,870건, 전기로 인한 것이 10,827건, 기계적 요인이 4,060건, 방화가 2,675건으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주의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전기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꽂초의 방치와 음식물조리중 부주의, 불씨·불꽃·화원방치, 쓰레기소각, 용접·절단·연마취급 부주의, 불량난, 빨래삶기, 유류취급부주의, 폭죽놀이 등으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 화기취급자의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화재를 키웠으며 이는 곧 생명과 재산을 소실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계분석결과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인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2)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겨울철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 사이에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통계로 분석하였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난방을 위한 보일러와 석유난로 등 화기에 취약한 유류사용의 급증과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 전기에너지 사용의 급증 그리고 가스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 확인 되었다.

화재사고가 집중되는 월동기간에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한 화재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대형사고 근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의거 철저한 사전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겨울철 계절적 특성에 따른 화재의 증가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와 겨울철 화재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화재의 원인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위험한 상태의 방치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부주의나 과실이다.

이 두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쇄 작용하여 화재가 일어난다.

모든 화재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화재예방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국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의 결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연간 4만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간당 4.7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면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으론 모든 국민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과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화재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프로그램에 초·중·고 교과정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서 화재 뿐 아니라 어떠한 위험요인으로부터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 즉 어릴 때부터 교육과 반복학습에 의해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분석 자료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마나 기여했으면 한다. 화재의 감소는 국가적으론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며 사회적으로 안전이 확보되고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에 바탕을 두고 화재통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소방안전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화재예방정책의 과학적 예측력과 정책적 설득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끝.